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h1>보도자료</h1>	
보도일시	2019. 7. 11.(목), 행사시작 이후(10:00) 보도	담당부서	국가교육회의기획단
배포일시	2019. 7. 10.(수)	담당팀장	조민환(02-2100-1314)
		담당자	최정운 장학사(02-2100-1334) 정동철 연구원(02-2100-1316)

“대한민국 청년, 내가 바라는 미래교육”

- 「청년세대와 함께 하는 2030 교육포럼」 개최 -

□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김진경)는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국회의원(국회교육위원회), 13개 청년단체들*과 공동으로 ‘대한민국 청년, 내가 바라는 미래교육’을 주제로 「청년세대와 함께 하는 2030 교육포럼」을 개최한다.

* 광주광역시 청년위원회, 꿈지락네트워크, 달서구도시재생지원센터, 무중력시대 G밸리,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전국사범대학생회연합회,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페토(peto)사회적협동조합, 혁신학교졸업생연대'까지'

○ 7월 11일(목), 오전 10시부터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번 포럼에는 100여 명의 청소년, 청년이 참석한다.

□ 이번 포럼은 미래 교육비전과 정책의 이해당사자인 청년세대가 직접 제안하는 2030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다양한 교육의제들을 경청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포럼 준비를 위해 전국에서 모인 청년단체들을 포함한 30여 명의 청년들은 지난 6월부터 직접 준비단을 구성하여 현장성 높은 의제를 제안하기 위해 사전 토론을 거쳐 포럼에서 발표할 의제를 만들었다.

- 포럼에서는 청년들이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피스모모」 문아영 대표의 기초발제를 시작으로, 청년에게 필요한 교육과 청년이 바라는 미래교육을 주제로 선정된 5개의 세부 의제(교육주체, 교육과정 및 학제개편, 진로교육 및 직업교육, 교육불균형 및 구조적 불평등, 지역사회와 돌봄)에 대한 청년 10인의 발제(제안)가 이어진다.
 - 청년과 함께 만들어가는 삶과 밀접한 교육과정 개편, 자기결정권을 갖는 학제개편, 경험을 통해 사회를 살아갈 힘을 기르는 진로교육,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의제 등 미래 교육 전반의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된다.
- 이날 포럼에서는 참여한 청년들과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청년 세대, 2030 미래교육 공동선언>을 통해,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며, 청년세대가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 합의과정에 적극 참여한다는 내용을 발표한다.
-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중장기 교육정책은 현재의 청년들이 우리 사회를 주도할 때 시행될 정책이란 점에서 중요한 청년의제 중 하나” 라며 “미래교육에 대하여 청년, 청소년, 학생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모으고 논의해 나갈 수 있는 안정적 소통구조 마련을 위해 국가교육회의에 ‘청년특별위원회(가칭)’ 를 설치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 박경미 의원은 “청년세대와 함께 하는 2030 교육포럼을 계기로 향후 교육문제를 해결하는데 청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대하며,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청년세대와 늘 소통하며 함께 대안을 모색해나가겠다” 고 밝혔다.

* [붙임1] 포럼 행사안내 1부.

[붙임2] <청년 세대, 2030 미래교육 공동선언문> 1부. (청년요구 정책의제 포함)

[별첨] 포럼 자료집(발제문 포함) 1부.

		<p>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가교육회의기획단 최정윤 장학사(☎02-2100-1334), 정동철 연구원(☎02-2100-131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p>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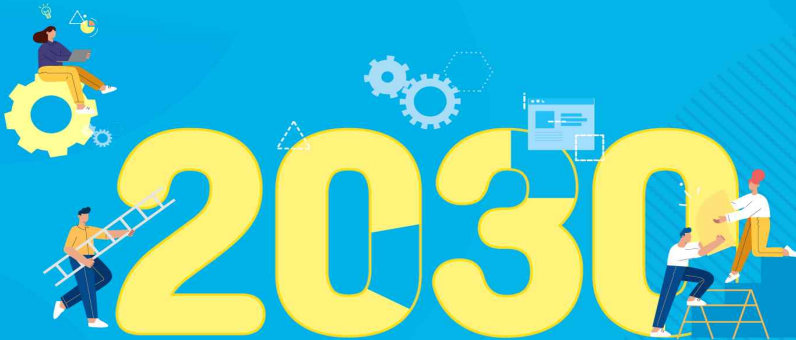
대한민국 청년, 내가 바라는 미래교육

청년세대와 함께하는 2030 교육포럼

일시 | 2019년 7월 11일(목) 10:00 ~ 12: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공동주최 |  국회의원 박경미  민중당  국가교육회의



행사 일정

09:00-10:00	등록	
10:00-10:15	개회	사회자 박석준 (꿈자락네트워크)
10:15-11:30	기초발제	
	문아영 (피스모모)	
	01. '민주'와 '평등'으로 향해 가는 고등교육, 대학의 공공성 강화에 대하여	최동혁 (전국국립대학생연합회), 이해지 (전국대학생네트워크)
	02. 교원양성기관과 교육의 책무성	박재범 (전국교육대학생연합)
	03. 청(소)년과 함께 세워가는 삶과 밀접한 교육과정 개편	윤석권 (무종역지대 G밸리), 조후영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04. 자기결정권을 갖는 학제개편	신태연 (페토(peto) 사회적협동조합)
	05. 경험을 통해 사회를 살아갈 힘을 기르는 진로교육	이경현 (경기대학교 청소년전공), 방해주 (혁신학교졸업생연대 '까지')
	06. 차별 해소를 위한 직업계고 교육의 변화	이상현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김창수 (우리동네노동권찾기)
	07. 구조적 교육 차별 해소	김다경 (광주광역시 청년위원회)
	08. (배움을 위해)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교육환경	노경민 (대구 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09.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의제	김동희 (경기도청년정책위원회)	
10. 인간에 대한 돌봄[Care]으로서 교육	김규진 (서대문 청년네트워크)	
11:30-11:40	현장의견 청취	
11:40-11:45	마무리 발언	김진경 의장 (국가교육회의)
11:45-12:00	공동선언 및 기념촬영	

‘2030 미래교육체제, 국가교육위원회는 청년 의제다!’

청년 세대, 2030 미래교육 공동 선언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청년의 삶은 위기에 처해 있으며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있다. 치열한 대학입시경쟁은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청년·청소년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 가정, 학교, 사회에서 “넌 참 소중한 사람이야!”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할 줄도 모르는 채, 대다수가 열패감에 빠지고 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을 위한 교육과 직업훈련을 받아도 그것이 내 삶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제4차 산업혁명의 한 가운데에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 자질을 함양하는 교육”이다. 불확실성 속에서 불안과 공포로 귀결될 것 같은 기술 진보의 성과를 잘 활용하며, 더 나은 삶이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각자도생에서 벗어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함께 넘어서야 한다. 불확실성을 덜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는 희망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우리 교육은 과거 산업사회의 획일적 입시경쟁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해 변화하는 삶에 적응할 힘을 주지 못하고, 우리들의 자존감을 해침으로써 인간다운 미래 삶을 개척해 나가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교육은 “자신과 주위를 돌아보며 스스로를 발견하는 시간”이고, “다양한 실패와 경험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나갈 힘을 키우는 연습의 공간”이며, “갈등과 이해 속에서 타인들과 함께 공감과 연대를 배우는 사회적 과정”이 되어야 한다.

우리 청년세대는 교육이 미래 세대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실현하는 일에 함께 할 것이다.

정권을 넘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구현하고자 하는 2030 교육체제는 청년세대가 사회의 주역으로 역할 하는 시기에 실현되는 것이다. 2030 교육체제는 청년의 이해관계와 직결되어 있으며, 우리의 의제임을 공감하였다.

하나, 우리는 정권을 넘어서 미래교육 체제를 구현하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할 수 있도록 국회가 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국가교육회의 청년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청년들의 전국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며, 이 네트워크의 힘으로 국가교육위원회에 청년, 청소년, 학생의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하나, 우리 청년들이 요구하는 정책의제들을 미래교육체제 수립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이후 이 정책의제들을 발전시켜 나아가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다짐한다.

2019년 7월 11일

‘청년세대와 함께하는 2030교육포럼’ 참석자 일동

김규진, 김다경, 김동희, 김창수, 노경민, 문아영, 박석준, 박새별, 방해주, 신태연, 이경현, 이상현, 이해지, 윤석권, 조후영, 최동혁, 광주광역시청년위원회, 꿈지락네트워크, 달서구도시재생지원센터, 무중력지대 G밸리,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전국사범대학생회연합회,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페토(peto)사회적협동조합, 혁신학교졸업생연대 '까지', 국회의원 박경미, 대통령직속국가교육회의

* 첨부) 우리 청년들이 요구하는 정책의제

1. 사회 구성원들의 존엄함을 이야기하는 교육, 평화역량을 키우고 평화 구축자 (peacebuilder)로서 청년들이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
1. 학생을 교육주체로 인정하는 학내외 민주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민주’와 ‘평등’으로 향해 가는 고등교육, 정부의 견제와 감사체계 강화를 통한 대학의 공공성 강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학생과 청소년 참여 보장
1. 교원양성과정 개편을 통한 예비교원의 질 제고와, 교원양성과 임용체계 개편에 학생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1. 삶에 접목하여 꼭 알아야 할 것을 배우는 교육, 삶의 주인으로서 경쟁이 아닌 함께하는 것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인성교육, 청년과 청소년을 이 사회의 주체로 인정하고 함께 만드는 새로운 교육과정
1. 경험을 통해 스스로의 삶의 방향성과 가치를 고민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학생의 능동적인 참여와 자기결정권을 갖는 학제개편, 실패를 통한 배움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과정, 지역과 연대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1. 다양한 학생자치 경험을 통해 ‘나’를 이해하고 사회를 살아갈 힘을 기르는 진로 교육, 청년들이 사회를 학교삼아 배우는 체험적 교육의 확대
1. 배울 것이 있는, 배우고 싶은, 배워서 쓸 수 있는 직업전공교육, 노동의 가치와 권리의 주체임을 배우는 노동인권교육, 취업과 직업생활에 실제 도움이 되는 사회진출학기제, 직업계고 교육의 근본적 변화, 대학을 안가도 행복한 사회
1. 엘리트체육, 장애, 다문화 등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습자의 기본권 보장, 누구나 가능성과 능력을 인정받는 편견 없는 사회
1. 배움을 위해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교육환경 조성, 지역을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광역단위의 교육 인프라 구축 후 기초단위에 연계, 국가장학금 제도를 활용한 지역 활동 장려
1. 지역사회의 학습공동체적 역할 제고, 학교가 지역의 혁신거점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교육정책과 교육과정 수립
1. 국가가 지원하는 전생애적 돌봄으로서의 교육,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해 한 사람이 건강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국민이 만드는 교육을 위한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